

# 소쉬르 작품의 사상적 연속성 탐구

김현권 교수의 서평에 대한 저자의 입장

김성도 | 고려대 언어학과 교수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는 인식론적·역사적 관점에서 소쉬르 작품들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소쉬르를 20세기 인문학의 사상적 지평으로 한 차원 끌어올리려는 기획이다.

지난 《출판저널》(제265호)에 실린 김현권 교수의 서평에 먼저 감사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짧은 지면의 절반에 걸쳐 상세하게 오류와 오역의 목록을 제시해 주신 점이다 (사실, 이 책에는 더 많은 오류를 찾아볼 수 있다. 필자 자신이 무려 50여개의 오식과 오문을 찾아냈으며 지난 달에 나온 2쇄에는 모두 정정됐다).

## 서평윤리의 부재

또 다른 이유는 그 서평의 전체적인 논조에서 드러나는 서평윤리의 부재로 인해 이렇게 다시 필자의 줄거에 대한 최소한의 보충적 설명을 하도록 동기 부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서평에는 필자 자신이 이미 저서에서 인정한 몇 가지 한계 중의 하나를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있다. 예컨대 소쉬르의 경험적 연구, 즉 연구어에 대한 평가와 소화가 부재하다는 지적은 온당하다. 하지만 그런 한계와 몇 가지 오역 및 편집의 오류가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잉충만”과 “과속”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 김교수의 평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김교수의 시비에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다만 한편의 저서에 녹아들어가 있는 글쓴이의 사색과 열정 그리고 육체적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저버린 채 그렇게 가볍게 평가하는 태도는 삼가라는 당부의 진언은 꼭 드리고 싶다. 여기서 김교수와의 논쟁은 접어두자. 그

리고 이 책을 소장학자의 한 날 성급한 연구서로 치부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독자들에게 최소한의 난간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 소쉬르 사상의 연속성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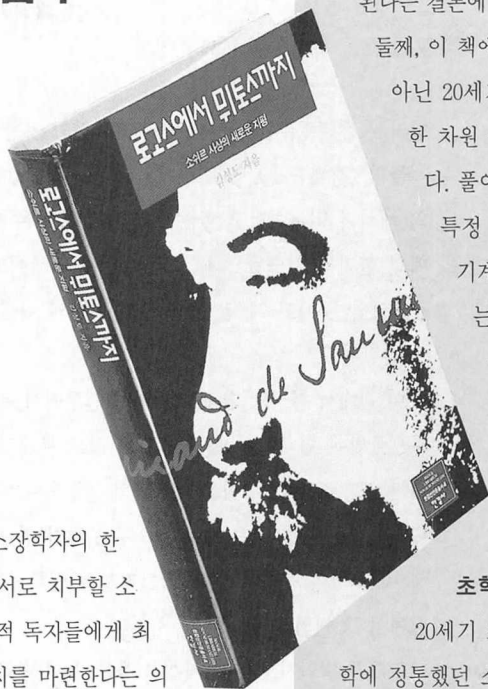
첫째, 이 책은 결코 소쉬르 사상의 전면목을 총체적으로 조감한다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 그런 책을 쓰려면 좀더 많은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다. 예컨대 소쉬르가 제시한 개념의 발생과 구조를 비롯해 사상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다.

이 책의 주된 문제의식은 다양한 소쉬르 작품들의 사상적 연속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뒀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은 시종일관 인식론적·역사적 관점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아나그람 연구를 비롯해 지명 연구와 니벨룽겐 신화 등 자연 언어 이외의 영역에 대한 소쉬르 관심의 배경에 있는 버팀목은 바로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단 한 페이지로 정의된 기호학적 비전이다.

필자는 이것을 소쉬르의 기호학적 의식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으며 소쉬르를 궁극적으로 20세기 문화과학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현대 기호학의 명실 상부한 창시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둘째, 이 책에는 소쉬르를 일개 언어학자가 아닌 20세기 인문학의 사상적 지평으로 한 차원 끌어올리려는 복선이 깔려 있다. 풀어 말해 필자의 저서는 단순히 특정 (언어)이론을 특정 데이터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는 데 안주하는 이 땅의 국어학자와 언어학자들에게 이론 자체의 역사적·철학적 토대에 대한 인식론적 탐색의 중요성을 시사하려는 ‘뜻’을 머금고 있다.



## 초학제적 정신 갖춰

20세기 초반의 경제학·심리학·사회학에 정통했던 소쉬르는 물론, 그 후의 계승자들인 벵베니스트·야콥슨·엘름슬레우와 같은 유럽의 구조 언어학자는 물론이요, 생성 언어학의 비조인 촘스키 등은 결코 언어학이라는 닫혀진 회로에 머무르지 않고, 언어학의 쟁점에 대해서 당대의 인문사회과학자들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초학제적 정신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한국의 국어학 전공자들과 언어학도들에게 언어의 본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야를 도야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필자가 스스로의 미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몹시 멋적지만, 이 책의 의의는 책의 내용과 논지의 차원을 넘어서 연구자의 자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생생한 예만 한 가지 소개한다. 필자는 소쉬르의 수고가 보관돼 있는 즈네브의 대학도서관에서 필사본을 열람하기 위해 모두 네 차례 갔으며, 그곳에 머무는 동안 고독의 눈물을 삭이며 딱딱한 바게트 빵을 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원동력은 소쉬르에 대한 사랑과 열정 외에 다른 것이 없었다. 최소한 국내 대부분의 소쉬르 관련 논문이 이차문헌과 해설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이 책은 일차 문헌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적극적 입장을 취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